



정의의 종

Vol. 23 2012. 06.

발행인: 정상조 | 편집인: 조홍식

151-74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6866 | Fax: 02-889-7196

http://law.snu.ac.k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대학원장 이·취임식



장의 축사(김평우 변호사 대독)로 진행되었다.

이날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정종섭 전 학장은 지난 2년을 소회하며 “이준열사 동상 제막과 신법학관 신축은 물론, 로스쿨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아시아의 법적 교류 증진 등 임기 동안의 많은 과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과 정상조 신임학장에 대한 소개로 이임사를 끝맺었다.

정상조 신임학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법의 정신이 꽃피기에 적박했던 시기부터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온 서울법대는 오늘날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임기 중에 서울법대의 도약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한편 교무부학장 겸 교무부원장에 조홍식 교수, 학생부학장 겸 학생부원장으로 이효원 교수, 기획부학장 겸 기획부원장으로 권영준 교수가 임명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학술협정 체결

우리대학은 지난 1월, 미국 Harvard Law School과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싱가포르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chool of Law 대학과 학술협정 및 학생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익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Contents

- 2-4 법대·법학대학원 소식
- 5-6 센터별 소식
- 6-7 교수동정
- 8-10 신간소개
- 11 수료식
- 12 발전기금



정상조 법대학장
겸 법학대학원장



조홍식 교무부학장
겸 기획부원장



이효원 학생부학장
겸 학생부원장



권영준 기획부학장
겸 기획부원장

2011학년도 법과대학 ·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2월 24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정종섭 법대학장은 졸업식사에서 “졸업생 여러분들의 학문적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울러 학문적 성취가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신 학부모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와 축하를 전하였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적 국가로 발전하는데 서울법대인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러한 빛나는 서울법대의 역사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학의 목적은 만인을 행복하고 사회를 아름답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며 졸업생들에게 “불의와 거짓에 맞서 진실을 밝힐 사람이 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종섭 학장은 졸업생들에게 “전 세계가 바로 여러분의 무대”임을 언급하고 “정든 교정을 떠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서울법대 인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로 식사를 마무리하였다.



다음으로 김경한 법대 동창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경한 동창회장은 “자랑스러운 후배 여러분들을 동창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1만 6천여 동문들과 함께 진심으로 반긴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경한 동창회장은 “법학대학원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전하며 “전국 로스쿨을 선도하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첫 졸업생인 여러분의 공이 크다”고 졸업생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법학박사 11명, 법학전문박사 1명, 법학석사 3명, 법학전문석사 119명, 법학사 201명 등 총 366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법학사 임효준 졸업생(07)과 법학전문석사 장태영 졸업생(09)이 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안았으며 류현범 졸업생(09)과 법학전문석사 윤소연 졸업생(09)이 법학사 최우등졸업생 32명, 법학전문석사 최우등졸업생 4명을 대표하여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우등졸업생 대표로는 법학사 72명을 대표해 김우석 졸업생(06)이, 법학전문석사 36명을 대표해 최지현 졸업생(09)이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문화관 중강당의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학업을 마치고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었다.

이흥재 교수 정년식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연구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흥재 교수가 2012년 2월 29일자로 정년퇴임을 하고 3월 1일 본교 명예교수로 취임하였다. 이흥재 교수는 1989년 1월 5일부터 본교에 재직하여 우리나라의 노동법제와 사회보장법제에 관한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퇴임 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으며, 2011년 출범한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2012학년도 법학대학원 입학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입학식이 지난 2월 28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정 종섭 법학대학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30여명의 내·외빈과 신입생들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배경과 잠재력을 지닌 법학대학원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입학식은 노혁준 학생부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한기정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 그리고 정종섭 원장의 내·외빈 소개 및 식사로 이어졌다.

정종섭 원장은 서울법대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식사를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 법학대 학원의 교육목적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임을 상기시킨 뒤 “초심을 잃지 말고 자신이 가졌던 큰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을 신입생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한편 만인을 위하여 헌신하는 윤리적인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 과 입학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를 끝으로 식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기념강연이 이어졌다. 이강국 소장은 자신의 학창시절 및 법관 생활 에 대한 소회를 시작으로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률가의 바람직한 역할상과 국민 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의 사명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을 위한 워렌 버핏과 빌게이츠의 회동을 언급하며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다할 것과 그 일에 일생을 걸어볼 것”을 신입생 들에게 주문하며 “법률공부에서 인생과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것”을 당부하며 기념강연을 마쳤다.

이 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158명의 법학전문석사 및 박사과정의 제4기 신입생들은 예비법조인 및 법조인으로써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지난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우리 법학대 학원은 이번 입학식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예비법률가 양성요람으로써의 전통을 이어나가 게 되었다.

시설개선 공사



지난 3월 근대법학교육100주년 기념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근대법학교육100주년 기념관의 노후한 내·외벽과 바닥 교체 및 인테리어 개선, 그리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2011년 11월 22일에 착 공하여 총 4개월여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17동 6층 서암홀 리모델링과 15동 강의실 공사도 함께 이루어 졌으며, 이번 시설 개 선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우리 법과대학은 한 층 높은 수준의 법학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 게 되었다.

이준 동상 제막식



법의 날이었던 지난 4월 25일 수요일 서암법학관에서는 서울법대의 전신인 법관양성소 최초 졸업생 중 한명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다 헤이그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

이 날 행사는 전 종의 기획부학장의 사회로, 한기정 교무부학장의 동상제막 경과보고와 정종섭 학장의 인사, 김경한 법대 동창회장의 인사 및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의 축사에 더불어 김경한 동창회장과 최인수 전 서울대 미대 학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로 구성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한 동창회장은 “법의 날을 맞이하여 이준 열사의 동상 제막식을 가지게 된 것에 진정한 영광을 표한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이준 열사의 발자취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이어진 축사에서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은 “오늘은 이준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부활하는 날”이라고 자신의 축사를 요약한 뒤, 이준 열사의 정신을 서울대학교가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동상 제막행사는 30여분간 진행되었으며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김준규 전 검찰총장, 정선태 현 법제처장, 신영무 대한변협회장, 이준 열사의 외증손자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서암법학관 대회의실 벽화 제막식



지난 4월 25일 서암법학관 401호 대회의실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후원으로 법대 동문화가인 윤두식, 염인섭 선생이 제작한 벽화의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전 종의 기획부학장의 사회로 벽화 제막식과 정종섭 학장의 인사 및 감사패 전달 그리고 염인섭 선생의 벽화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종섭 학장은 벽화를 제작한 윤두식, 염인섭 선생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벽화의 제작과정 소개 및 감사의 말로 인사를 감응하였다. 이어서 염인섭 선생은 모교에 자신이 제작한 벽화를 걸게 된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법”을 표현한 벽화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서울대 법대 전 · 현 학장 사제서에전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법대 학장)와 정종섭 학장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한전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서예전을 열었다. 박병호 명예교수는 이번 전시회에서 해서 · 예서 · 초서 등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정 학장은 해서와 서첩의 대작을 선보였다.

이번 서예전에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콘텐츠 산업의 법과 정책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호텔에서는,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버클리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주최의 '제7회 하와이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콘텐츠 산업의 법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버클리대, 서울법대 교수들이 발표를 이어갔다. 토론은 Red Bull,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광장이 참여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경제행정법의 연구동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지난 2월 28일 법과대학 17동 서암홀에서 제8회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원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일본에서 경제행정법의 연구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일본 와세다대학 佐藤英善(사토 히데타케) 명예교수와 와세다대학 岡田正則(오카다 마사노리) 교수, 대법원 김태호 재판연구관이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Comfort Women Issues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지난 3월 27일 17동 서암홀에서 한·일 간에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Comfort Women Issues'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요시다 쿠니히코(홋카이도 대학, 민법), 미국의 야마모토 에릭(하와이 대학, 민법), 필리핀의 게이츠 크리스티나(임상 심리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한인섭, 양현아 교수 등이 발표를 하였다.

제2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대한상사중재원, (사)국제중재실무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 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제2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가 지난 2월 18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올 해 대회부터는 참가팀들에게 국제적인 중재인들로부터 판정받는 경험을 주기 위하여 싱가포르의 저명한 국제 중재인인 Michael Hwang 변호사(현재 Singapore Law Society 회장) 및 홍콩 시립대학의 저명한 국제중재법 교수인 Rajesh Sharma 교수를 초청하였다. Michael Hwang 변호사는 결승전의 의장중재인으로, Rajesh Sharma 교수는 준준결승 및 준결승에서 중재인으로 참가하였으며, 그 외에 국내 유수의 중재전문 변호사 및 교수들이 중재인으로 참여하여 참가팀들을 평가 하였다.

이 모의 국제상사중재대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중재관련 기관 및 상사 중재법을 전공으로 하는 실무자, 학자 및 미래의 법조인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중재 community 연례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국제투자중재법 포럼 창설 및 운영

최근 투자자와 국가간의 국제투자협정중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국제투자중재법 포럼을 신설·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9일 첫 번째 포럼을 열었다. 학계, 실무자, 정부 공무원, 판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이 포럼은 신희택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한미FTA체결과 개성공단 법제도 정비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는 통일부 후원하에 2011년 12월 22일 개성공단 법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미FTA체결과 개성공단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서울법대 교수진, 북한법 전문가 및 통일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 관계자, 입주기업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의 체결이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현안으로 제기되는 법적 분쟁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교수동정

최종고 교수



최종고 교수는 지난 1월 3-11일 인도 뉴델리의 네루도서관에서 한국관계자료를 조사수집하고 돌아와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운숙』(기파랑)을 저술 출간하였다. 2월 8-14일에는 일본 교토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에서 ‘경성제국대학 법학의 유산’을 발표하였다. 2월 29일에는 준원 이광수의 경성제대 학적부를 서울대 기록관에서 발굴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서울대 인명록’에 등재하였다. 3월 1일에는 3.1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제53회에 이르는 본상에서 법학으로는 최초의 수상을 하였다.



호문혁 교수

호문혁 교수는 지난 3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동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안경환 교수

2011년 12월, 인권주관을 맞아 Taiwan 법무부가 주관하는 국제인권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대만 정치대학에서 북한과 동남아시아의 인권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또한 지난 2월 27일에 한국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4회 대한민국법률가상(인권부문)을 수상하였다.



성낙인 교수

성낙인 헌법통일법센터 소장은 2011년 12월 22일 법대 서암홀에서 통일부의 후원으로 ‘한미 FTA 체결과 개성공단 법제도 정비’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성낙인 교수는 2012년 3월 16일 연세대 법학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는 선거법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윤진수 교수

윤진수 교수(한국민사법학회회장)는 2011. 12. 9, 10. 양일간 서울대학교에서 대만, 일본, 중국 민사법학회와 공동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법전 제·개정과 국제화·통일화의 과제’를 주제로 하여 제1회 동아시아 민사법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신희택 교수

신희택 교수는 2011년 12월 발족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았다. 또한 2012년 3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간 중재제도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와 정책건의를 위하여 발족한 “ISD 민관 Task Force”의 민간측 공동위원장을 수행중이다.

신희택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 센터는 2012년 1월 13일 대한상사중재원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제투자분쟁(ISD) 세미나”를 주최하였으며, 2012년 2월 19일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는 “제2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를 주관하였다. 신희택 교수는 한-미 FTA과정에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투자자-국가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국내 학계, 실무계 및 정부관계자들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국제투자분쟁법 포럼”을 창설하여, 2012년 3월 19일 첫 모임을 가졌다. 신교수는 국제경제법 학회가 주관하여 2012년 2월에 발간된 국제경제법 교과서의 국제투자법 분야를 집필하였다.



정궁식 교수

정궁식 교수는 ‘生養家 奉祀 慣習에 대한 小考’(저스티스 통권 제124호[2011. 6.])로 한국법학원에서 주관하는 제16회 법학논문상 수상을 수상하였다.



송석운 교수

송석운 교수는 2011년 8월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 연구소에서 “Verfassunggebung und Verfassungsänderung in S d korea”(한국에서의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German-Southeast Asian Center for Public Policy and Good Governance(CPG)가 태국 방콕에서 2012년 2월 24-26일에 “Conflict and Consent in the Basic Constitutional Order”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Pluralist Integration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Politics”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패널의 사회를 보았다. 송교수는 또한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한국학과가 2012년 3월 29-31일에 “Lost or Found in Policy Translation?”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Genesis of Article 8 of the Korean Constitution: Transplantation of the German Party Clause to South Korea”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곽윤직 명예교수 · 김재형 교수 : 민법총칙[민법강의 I] 제8판 / 박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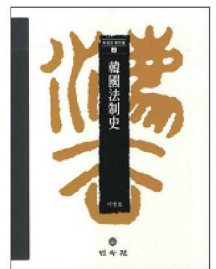
오랜 세월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곽윤직 교수의 ‘민법강의’ 시리즈가 김재형 교수의 개정작업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그 첫 번째 개정작업의 결과가 『민법총칙』 제8판이다. 이번 개정판은 2002년 제7판이 발간된 이후 상당수 변화된 제·개정 법령,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나아가 독자들이 민법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모두 한글로 바꾸고, 표현과 어법을 간결하게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들이 출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기존 민법교과서 편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박병호 명예교수 : 한국법제사 / 민속원

박병호 명예교수는 “朴秉濠 著作集” 『韓國法制史』를 간행하였다. 이는 1986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을 대중용으로 민속원에서 재간행한 것이다. 한국법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한 한국법제사에 대한 표준적인 개설서이다.

박병호 명예교수(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교수)는 1996년 8월 본교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도 한국법제사와 고문서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꾸준히 연구성과를 내고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박병호 저작집”은 전 저작을 수록하는 것으로 11권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이는 그 첫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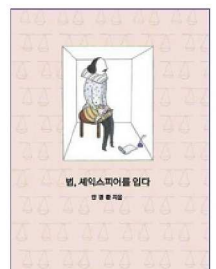
호문혁 교수 : 민사소송법 원론 / 법문사

이 책은 호문혁 교수의 기존의 교과서인 『민사소송법』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추린 책이다. 『민사소송법』의 사례를 본문에서 예로 설명하는 등 학설과 판례의 소개나 검토 등을 충실하게 담아내었다. 호문혁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민사소송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민사소송법을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정리용 교과서로 이 책을 사용하기를 희망하였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교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저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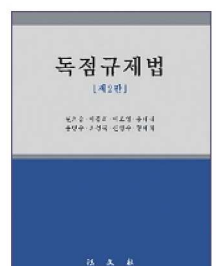
안경환 교수 : 법, 셰익스피어를 읽다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양 문화권에서 셰익스피어는 가히 세속경전으로서, 보편성, 국제성, 다문화주의 등 21세기의 모든 의제와 담론을 포용하는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안경환 교수의 『법, 셰익스피어를 읽다』는 인류의 불멸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햄릿’, ‘베니스의 상인’, ‘리어 왕’ 등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 12편을 대상으로 한 법률주석서로서, 법학자의 눈으로서 본 셰익스피어에 대한 해석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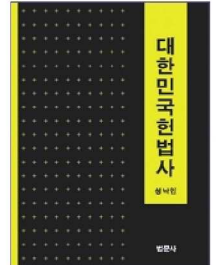
권오승 · 이봉의 교수 외 : 독점규제법 제2판 / 법문사

지난 2010년 9월에 초판이 출간되었던 『독점규제법』 제2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권오승, 이봉의 교수와 각 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으로 제2판에서는 초판에 비하여 개정된 법률과 발전된 판례 및 이론의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서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과대학 학생들은 물론이고 사법연수원생이나 실무가들을 독점규제법이라는 전문영역으로 안내하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낙인 교수 : 대한민국 헌법사 / 법문사

이 책은 30여 년의 시간 동안 헌법학 연구와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성낙인 교수가 그간 대한민국 헌법사 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한 끝에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은 그간 발표된 일련의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의 집합체로써 그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하나의 결과물로 거듭나게 되었다. 성낙인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사의 체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제5편을 할애하여 21세기 바람직한 헌법의 모색까지 도모하고 있다.



성낙인 교수 : 판례헌법 제3판 / 법문사

헌법학의 체계적인 연구 및 특수 헌법학의 연구에 앞장섰던 성낙인 교수는 3년여 만에 『판례헌법』 제3판을 출간하였다. 『판례헌법』은 헌법학의 자매서로써 헌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제 문제의 해결능력 배양능력 제고에 일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문을 통해 헌법학은 추상적인 이론과 판례를 겸용하는 방향으로 법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며 이번 판례헌법에서는 최신의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그 의도에 충실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성낙인 교수 : 헌법학 제12판 / 법문사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제12판이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법률용어를 한자와 한글로 병기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제11판 이후 제정, 개정된 관련 법률들이 상세히 반영되어 있다. 또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비롯한 다수의 판례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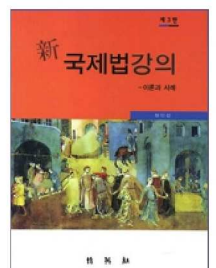
성낙인 · 이효원 교수 외 : 헌법소송론 / 법문사

1988년 개소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한국 현대사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그 활약상은 이 책의 서문에서 언급되듯이 헌법을 국민 생활 속의 최고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이에 성낙인 교수와 이효원 교수는 다른 4인의 교수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책을 출간하였다. 서문에서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 헌법연구에 주목하며 헌법소송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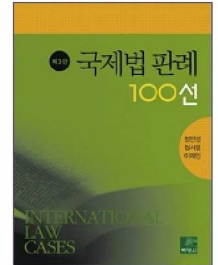
정인섭 교수 : 신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3판 / 박영사

정인섭 교수의 『신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3판이 개정되어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국내외 판례와 경향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고 강의 경험상 설명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충되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시험범위를 고려하여 제8장 범죄인인도 제도와 제11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부분의 위치가 앞장으로 이동되었고,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9장 조약법, 제10장 국가책임 등의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목차의 변경과 더불어 내용 보완을 하였다. 또한 제13장 해양법에서는 내수를 별도항목으로 신설하였으며,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에서는 특히 자위권 부분의 설명을 보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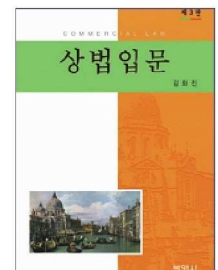
정인섭 교수 외 : 국제법판례 100선 제3판 / 박영사

제작년 여름에 출간되어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공저의 『국제법 판례 100선』이 3번째 개정판으로 새로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제법 학습에 필수적인 판례를 선별하여 핵심적 쟁점, 판결 결과를 소개한 책으로 구 판에서 판결 발췌문과 제시된 쟁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3인의 필자가 공저하면서 발생한 일관성 부족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3건의 판례가 추가로 수록되었다. 책은 모두 2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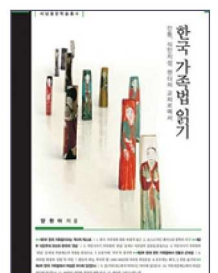
김화진 교수 : 상법입문 제3판 / 박영사

김화진 교수의 『상법입문』 제3판이 출간되었다. 대한민국 상법에 관한 입문서로, 강학상 널리 상법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입문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상법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해서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저술되었으며 특히 그 내용의 경제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상법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정이라 할 수 있는 2011년 4월 14일 개정 상법 회사편의 내용에 맞춰 이번 책에서도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 더불어 통상적인 상법개론이나 입문서가 다루지 않은 기업인수합병의 입문적 내용을 후반부에 다루고 있는 점 또한 특징으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많은 상법 입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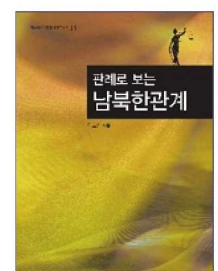
양현아 교수 : 한국 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 창작과 비평사

이 책은 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는 가족법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일제강점기부터 100년에 걸친 역사를 사회학적, 법해석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양현아 교수는 일본식 근대화가 영향을 미친 식민지 조선의 법제, 일본의 가제도·씨제도와 조선 고유의 전통·관습이 접합하고 왜곡된 과정,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정된 해방 후 대한민국의 헌법, 그 법원(法源)으로 간주된 '고유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그릇된 관념, 그리고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는 긴 과정을 역사적 연원과 사회변화 규명과 함께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적 페미니즘, 한국적 여성주의 법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효원 교수 :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효원 교수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시대적 과제로 보고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남북한 간의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과정을 규율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남북한관계와 사법적 판단 및 헌법규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 남북합의서,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과 법률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모색하고 있다.



최고지도자과정 15기 수료식



2012년 2월 24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제15기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제15기 과정에서는 총43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규혁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위성호	신한은행	부행정
강영은	MBC 아카데미	이사	유영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실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이사	이광수	대한항공	전무
기세도	에이엠모더스㈜	대표이사	이성태	한국지식재단	회장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수보	(주)동일기술공사	사장	임동혁	뉴서울컨트리클럽 / 한국문화진흥(주)	대표이사
김승현	㈜에스엘우드	대표이사	임병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지원장(부장판사)
김시열	(주)MFC	대표이사	임항자	한국사진영상산업	임장
김영종	서울중앙지방법원합청	첨단범죄수사1부장	정영태	대한유화공업(주)	대표이사
김재열	POSCO	상무이사	정재욱	MBC플러스미디어	방송이사
김재윤	민주당	의원	조미현	현암사	대표
김태우	필리스요양병원	병원장	조복래	연합뉴스	편집부국장
김현웅	서울서부지방법원합청	검사장	조양환	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김해연	신반포상가연합	회장	조재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김희태	우리아비바생협	대표이사	조창호	㈜아산상선	대표
남기현	남기현정형외과의원	원장	최외근	한전KPS	전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최종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남혁	달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최홍식	정우(주)	회장
서성동	대통령실 경호처	본부장	하인아	㈜원도우 오브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성남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한승환	삼성SDS	전무
송세인	KBS 보도본부 경제부	부장	홍순익	정성서중학교	교장
송시현	온세계건설(주) / 유아이건설(주)	대표이사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Academy 3기 수료식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기 수료식이 2011년 8월 26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지난 1996년에 개설 이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법조인 및 기업 실무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36명이 수료하였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성용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본부장	서 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성숙경	주식회사 케이티	상무보
국상종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성재용	미로텍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광준	(주)JNHN	경영지원그룹장	양계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대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근	삼성전자	상무
김배훈	(주)영국전자	대표이사	이백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병배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이상연	SK Telecom	상무
김봉택	살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완섭	원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운호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
김인호	국가핵융합연구소	기획조정부장	이종상	LG	전무
김종우	강남대학교	교수	장건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사원
김지영	LS산전(주)	이사	전생규	LG전자	상무
김형진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 청주지방법원	판사	정지영	법제처	사무관
김홍기	지식산업센터 INNO	대표	최인재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나달수	(주)아모레퍼시픽	팀장	최중현	법무법인 유현회사 로고스	구성원변호사
남정길	아이시스 국제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	한상록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상무이사(사무국장)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석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실장
박재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법과대학 / 법학연구소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2011-12-0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2-03-22	대한생명보험(주)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12-06	법무법인 올촌	5,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2-03-23	(주)한화건설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12-13	법무법인(유) 태평양	5,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2-03-23	(주)한화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12-16	법무법인 지평지성	3,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2-03-23	한화손해보험(주)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12-19	장윤희	10,000	법학전문대학원	도서	2012-03-27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12-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2-03-27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12-21	송지연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2-04-03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12-23	김·장 법률사무소	5,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2-04-06	조상원	200,000	법과대학	위임
2011-12-27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2-04-18	장윤희	10,000	법학전문대학원	도서
2011-12-27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2-04-23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2-01-02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2-04-25	Eyagi(이야기) CAFE	22,500,000	법과대학	장학
2012-01-25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2-04-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2-01-27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2-04-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2-01-27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납입액기간합계 (2011.12.01.-2012.04.30)				194,200,000
2012-02-0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법학발전재단				
2012-02-06	장윤희	10,000	법학전문대학원	도서	납입일	성명	납입액	기금용도	
2012-02-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12-22	CIPO 2기	5,000,000	위임	
2012-02-28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12-27	라성 정형기	40,500,000	장학	
2012-02-28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2-02-29	이강국	300,000	위임	
2012-02-28	장윤희	10,000	법학전문대학원	도서	2012-02-29	김옥선	6,750,000	장학	
2012-03-02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2-03-14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0,000	학생	
2012-03-07	법무법인 충정	3,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2-03-23	홍석조	10,000,000	학생	
2012-03-12	김경한	50,000,000	법과대학	시설물	2012-04-06	박수철	300,000	위임	
2012-03-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2-04-17	익명	3,000,000	위임	
2012-03-22	장윤희	10,000	법학전문대학원	도서	2012-04-30	박성중	1,000,000	위임	
2012-03-22	(주)한화갤러리아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2-04-30	장기동	1,000,000	위임	
2012-03-22	한화증권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2-04-30	백진호	2,000,000	위임	
2012-03-22	한화석유화학(주)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2-04-30	박원철	2,000,000	위임	
2012-03-22	한화엘앤씨(주)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2-04-30	김영희	2,000,000	위임	
				납입액기간 합계 (2011.12.01.-2012.04.30)				75,850,000	



서울대-한화 법대 강의동 건립 협약식

지난 4월 26일 '서울대학교 법대 첨단강의동 건립 협약식'이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오연천 총장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법대 첨단강의동은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말굽형 강의실, 임상법학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대한생명 등 한화그룹 내 5개 계열사가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